

입지 좁아진 롯데백 광주점...일자리 감소·상권 쇠락 우려

고급화 전략에 한때 매출 1위 기록...구도심 슬럼화로 폐점 논의도 롯데 유통 체인 근무 2600여명 달해...긴축 운영 등 파급 효과 심각 롯데마트·아울렛 월드컵점 2027년 계약 만료 앞두고 우려 목소리

신세계, 현대 등 '유통 공룡'들의 대규모 투자와 그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비롯한 롯데 계열 대형 유통체인들의 경쟁력 저하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주변 상권 쇠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긴축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최악의 경우 수천개에 달하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 차원의 세심한 대책과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월 광주점에 따르면 광주점은 영업면적 3만 3057㎡(2만3000평) 규모의 백화점으로, 입점한 매장만 400여개에,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롯데 계열 대형 유통업체인 광주점, 롯데마트 월드컵점, 롯데마트 수완점 고용 직원은 총 26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롯데 계열 유통업체를 통한 관련 업계 지역 고용 등을 감안하면 지역 경제에 끼치는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점은 지난 1998년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옛

광주공용버스터미널 부지에 문을 열어, 롯데만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 광주 호남지역 백화점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뒤이어 상무지구, 수완지구 등 신도시 위주의 도시개발이 이뤄지며, 광주점이 위치한 구도심 인근 인구 및 상권이 대거 이탈해 구도심의 쇠락과 함께 광주점의 매출 역시 하락해왔다.

더불어 최근 광주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복합쇼핑몰 대전'에서도 지난해 우지공원 자리에 롯데월드와 복합쇼핑몰을 함께 짓겠다는 계획이 광주시와 적절한 합의를 찾지 못하면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 내 롯데 계열사의 경쟁력 약화 및 지난달 마산점 폐점 등이 맞물려 오는 2030년 롯데 리츠와 광주점의 임대 계약이 끝나면 광주점 역시 폐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지역 내 롯데 계열 유통업계의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롯데마트·아울렛 월드컵점 역시 오는 2027년 계약이 만료되며, 해당 부지 소유자인 광주시는 인근 '염주종합체육관 권역'에 스포츠, 문화 공간, 대형 쇼핑몰 등이 갖춰진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롯데 계열 유통업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유일의 백화점인 광주점이 문을 닫을 경우, 광주 구도심 슬럼화 가속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구도심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구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광주점을 중점에 두고, 백화점과 구도심 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점은 광주점 폐점 또는 월드컵점 계약 만료시 철수 등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광주점의 경우 지난해 297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적자가 아닌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출규모로도 전국 31개의 롯데백화점 지점 가운데 매출로 중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호남 유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상징성이 있는 지점이라는 점도 이이다.

광주점 관계자는 "광주신세계 확장에 이어, 더현대 광주 등 경쟁업체들이 개점하는 시기에 마땅한 복합쇼핑몰 계획이 없는 롯데가 경쟁력이 저하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며 "롯데만의 고급화 전략 강화 및 리모델링 방안 등 다방면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아동복 고객 잡아라”...광주신세계, 키즈 라인 강화

스파오·블랙야크 등 재단장 럭키박스·장바구니 증정 등

광주신세계가 성인 브랜드가 런칭한 아동복 라인을 재단장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선다.

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신관 지하 1층에 '스파오 키즈(SPAO KIDS)'가 문을 열었다. <사진>

국내 SPA 브랜드인 스파오는 '즐거움을 입다'라는 정체성으로 아이들이 입을 때 즐겁고, 뛰놀기 편한 옷을 선보이고 있다.

스파오 키즈는 광주신세계 오픈을 기념해 만화 캐릭터와 콜라보한 반팔 파자마 세트를 1만9900원에 판매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헬로키티, 시나모롤, 마이멜로디, 토포푸핀, 쿠로미, 포치코부터 만화 장구 속 다양한 캐릭터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스파오 키즈는 또 오는 11일까지 오픈 기념 모든 구매고객에게 쿠로미 부채와 산리오 캐릭터 풍선을 증정하며 당일 7·10만원 구매 시 1만·2만원의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 오는 9일에는 파자마 1벌 구매 시 15만원 상당의 럭키박스를 증정한다.



지난 6일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의 키즈라인도 재단장하고 문을 열었다. 블랙야크 키즈는 아웃도어와 데일리 코디가 가능한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블랙야크 키즈는 오는 18일까지 5만원 이상 구매 시 양말, 10만원 이상 구매 시 전환경 장바구니를 선착순 증정한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 키즈 라인과 기능성을 살린 키즈라인 등 신관에 새로운 키즈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폭넓은 연령층의 니즈를 채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최대 50% 저렴하게...롯데백화점 광주점, 추석 선물 예약 판매

내일부터 25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선물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축산과 수산, 청과, 와인 등 다양한 품목의 명절 선물을 미리 선보이며, 정가가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광주점은 명절 사전 예약 판매 인기가 늘어나면서 올해 추석을 앞두고 전년 대비 전체 물량을 약

10%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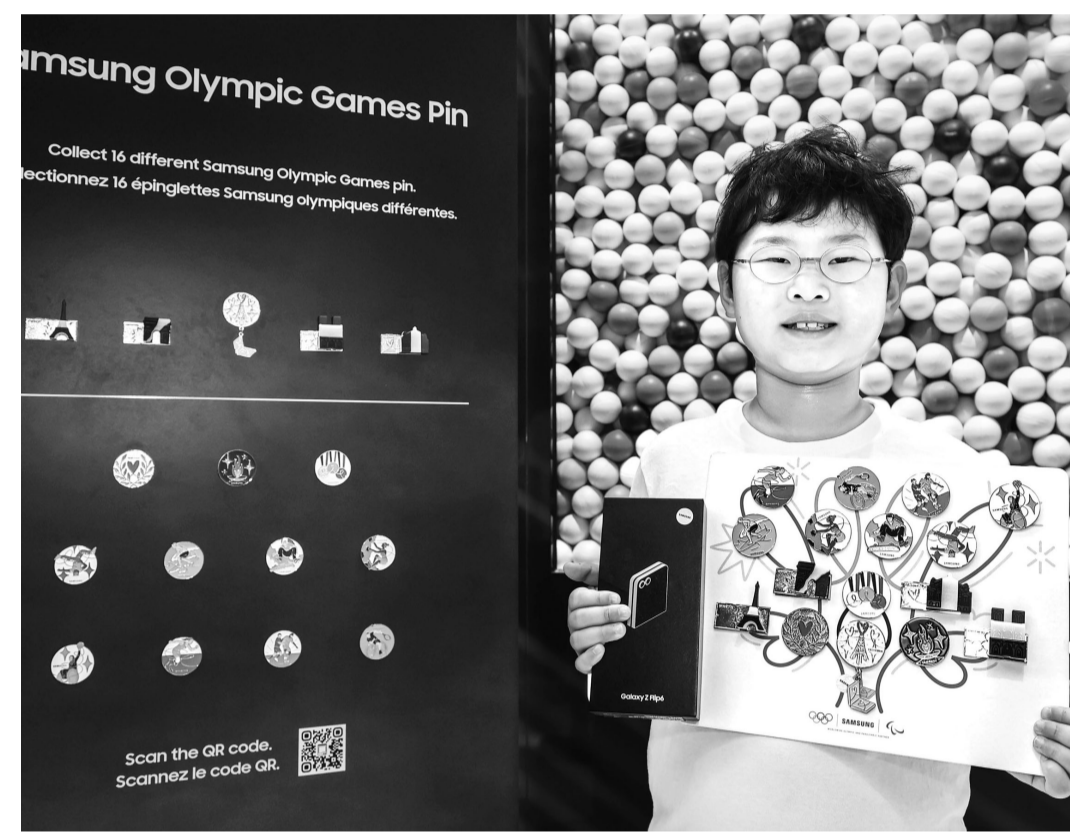
먼저 축산·수산 선물 세트는 프리미엄부터 실속세트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1+' 등급 4가지 고급 부위로 구성된 '한우특선 스테이크 GIFT'와 '완도 활전복 행복 GIFT' 등이다.

청과 선물 세트는 품질은 높고 가격대는 낮췄다. '엘프리미에 사과 샤인 애플망고 GIFT'와 '레피세리 사과 배 GIFT', '항공 직송 브라질산 망고로 구성된 '레피세리 실속 애플망고GIFT'를 합리

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건강기능 식품도 빠지지 않는다. 명절 선물로 수요가 높은 '홍삼 선물세트', '동원 천지인 발효홍삼', GNC의 '메가맨비타팩', '우먼스비타팩' 등을 정가가 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

명절 기간 가족·지인과 즐기기에 좋은 주류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마릴린 만로가 사랑한 샴페인 '파티하이직2014' 등을 사전 예약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장윤영 기자 zzzang@



7일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삼성 올림픽 핀 16종을 모두 모은 첫 관람객인, 벤 최 어린이가 수집한 삼성 올림픽 핀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올림픽 핀 다 모으면 갤럭시 Z 폴딩6 증정”

삼성전자, 파리서 수집 이벤트 ‘갤럭시 AI’ 체험 참여 시 제공

삼성전자가 '올림픽 핀'을 재해석한 '삼성 올림픽 핀 마스터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화제다. 삼성전자는 7월 2024 파리 올림픽을 기념해 '삼성 올림픽 핀' 16종을 제작했다.

올림픽 기간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방문하는 고객이 '갤럭시 AI' 체험 미션에 참여하면 '삼성 올림픽 핀'을 받을 수 있다.

올림픽 핀은 최초의 올림픽인 1896년 아테네에서 선수와 심판, 관계자 등을 식별하기 위해 나무

로 다양한 색상의 핀을 만든 것에서 유래했다.

1924년부터는 참가 선수들의 우정의 증표로 핀을 교환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2024 파리 올림픽 기념 '삼성 올림픽 핀'은 프랑스 디자이너 장 앙드레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16종의 핀은 각 종목과 올림픽 상징물로 제작됐다.

삼성전자는 16종의 핀을 모두 수집하는 고객에게 '갤럭시 Z 폴딩6'를 증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2인 왕복 패키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